

광주도서관 순식간에 와르르... “제발 살아있길” 수색작업

철재-콘크리트에 매몰된 노동자들 현재는 ‘수색업’... 크레인도 동원돼 최초신고자 “순식간에 무너져내려”

“제발 살아있길.” 11일 오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던 공사 현장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건물 철재 빔이 두동강나고 지반이 무너져내린 한편 콘크리트가 스며들어 굳어 가던 철골이 생선가시같은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다.

희뿌연 흙먼지가 날리고 중장비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에서는 노란 작업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의 수색 작업이 분주했다. 철재 구조물과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내린 탓에 당장 할 수 있는 구조 작업은 손으로 직접 잔해 더미를 치우는 일 에 불과했다.

구조대원들은 틈새를 찾아 손전등을 비춰가며 매몰 노동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가 하면 답답한 듯 이따금 고개를 하늘로 들어 한숨을 몰아 쉬기도 했다.

급기야 굴삭기를 비롯해 중량 84.7t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 2대까지 현장에 배치되면서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목격자들은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 소방 당국이 잔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 4명을 구조 중이다. /뉴스1

며 어찌할 방도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인 임모(60)씨는 “사고는 오후 1시55분경 정조조차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철골이 부러지고 2층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무너져 내리지 않은 쪽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투입된 노동자 7~8명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임씨는 “사고 직후 작업자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는 소리가 들렸지만 외마디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며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 어찌할 방도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경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공사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광주 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년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역특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와 민관 협력을 독려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주도형 특화 전략 모델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최종 사례를 선정·발표한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뤄 지역 자산을 발굴·활용하고, 이를 지역 브

광주 유일 국토부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우수상

동구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지역특화 우수사례로 인정

랜드로 성장시켜 지역 가치를 높인 우수 사업과 활동 사례를 선정하는 부문이다.

동구는 서남동 인쇄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을 기반으로 ‘청년이그리는 도시재생, 서남동 인쇄문화마을’을 주제로 추진한 차별화된 지역 브랜딩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인쇄산업의 집적지로서 3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쇄 장인들을 중심으로 쇠퇴한 인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서남동은 인쇄태거리 조성과 거점 공간 구축을 통해 노후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인쇄굿스테이’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며 도시재생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로컬 크리에이터, 조선대학교 도시캠퍼스, 청년마을 ‘서남예술촌’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

해 구축한 자·산·학·관 거버넌스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모두의 숲’을 중심으로 지역을 촘촘히 연결했다. 서남동 인쇄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를 통해 인쇄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공간이 조성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람이 연결되고 관계가 확장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인 지역 창작자들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활력 있는 서남동 인쇄 거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조합원 2800여명 역시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운행’

지인력을 제외한 약 1200~1500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영을 이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부터 임금교섭 세부 안전에 대한

쟁점을 두고 교섭을 진행해 오전 7시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철도노조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안전에 대해 제반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본부 파업 출정식과 파업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교육청, 지역 서점 연계 ‘바로대출서비스’ 확대 서비스 만족도 높아 2026년부터 22개 시·군 전 도서관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재 목표와 나 주, 영광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지역 서점 연계 ‘바로대출서비스’를 2026년부터 22개 시·군 전 도서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점바로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을 시작으로 2022년 나주·영광도서관이 이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400여 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지역 서점에서 10,300여 권의 책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이용자는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지역 서점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도서관과 서점,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켜준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소속 22개 전 도서관으로 이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지난 12

월 9일·10일 이틀간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 및 지역서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점바로대출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확대 운영을 앞두고 참여 기관이 운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는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각각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이 연수를 통해 신청·승인 흐름, 대출·반납 기준, 정산 방식, 시스템 처리 과정 등을 실질적으로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서점바로대출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독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역할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서점바로대출 서비스는 공공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독서문화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도 교육청은 학생과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도서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산·학·연 전략회의 개최

광융합·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방위산업으로 확장·육성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남 목포시 상그리아 비치호텔에서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춘 방위산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케이(K-)방산’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방반도체를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으로 규정하고 기술 국산화·자립화에 힘쓰고 있다. 2026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대해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회의 첫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산업 육성 전략 ▲광주 방위산업의 세부 추진 과제 ▲군(軍) 수요

기반 과제 발굴 ▲방위기업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의 광융합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를 활용, 국방반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광주국방벤처센터 유치로 시작으로 지역기업의 방위 기술 개발과 방위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반도체 분야 육성을 지역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앞서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지난 11월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순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광주는 광·가전산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성장한 데 이어 방위산업까지 산업 지형을 확장할 계획이다”며 “지역기업의 기술로 방산 수요를 충족하며 기업 성장과 산업 확장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취급차량: 1t~12t •중양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